1분기 도내 광·제조업 생산 늘어

자동차·트레일러, 식료품 등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소매판매는 0.4% 감소

1분기 전북지역 광업.제조업 생산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분기 전북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식료품 등의 호조로 5.5% 증가했다.

증가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17.2%), 식료품(6.4%) 등이며 기타운송장비(-65.5%)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에서 감소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분기대비 1.5% 증가했다.

1분기 소매판매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및 편의점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전문소매점에서는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86만2000명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4.7%), 광제조업(-5.6%), 건설업(-4.6%)은 감소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7.3%), 전기.운수.통신.금융(10.3%), 농업, 임업 및 어업(3.7%)은 취업자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고용률은 56.3%이며, 전년동분기 대비 0.1%p 하락했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등의 가격은 하락했으나, 교통,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동분기대비 2.0% 상승했다.

전북지역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기대비 62.8% 감소했다.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65.2%), 토목(-59.1%) 등 모두에서 감소했으며, 발주자별로는 공공(-68.9%), 민간(-55.1%) 등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1분기 전북 수출액은 총 16억 달러로 기타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4.1% 줄었다.

제조업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23.6%), 화학제품(27.7%), 1차 금속(76.6%) 등은 늘었으나, 기타운송장비(-83.8%), 기계장비(-27.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35.2%) 등이 감소했다.

또한 수입액은 총 11억 달러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장비, 목재 및 나무제품 등이 늘어 전년동분기 대비 16.2% 증가했다.

1분기 전북지역 인구는 186만명으로 3,345명 순유출됐다.

연령대로 보면 60대(117명), 50대(66명), 40대(32명) 순으로 순유입됐고, 20대(-2,465명), 30대(-556명), 10대(-335명) 순으로 인구가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시(939명), 완주군(252명), 전주시(160명) 순으로 인구가 늘어난 반면, 고창군(-1,583명), 군산시(-892명), 임실군(-600명) 순으로 순유출됐다. /안재용 기자

에코시티 '트윈타워 1, 2' 분양

랜드마크 상가, 저금리 불황대책 · 노후대책으로 각광

성전건설은 에코시티 부지개발 사업의 주주사로서 '트윈타워 1, 트윈타워2'를 분양할 예정이다.

트윈타워1(C1-⑩-3)은 지하2층-지상8층으로, 7층과 8층에는 오피스텔 7세대, 트윈타워2(C1-⑦-2)는 지하2층-지상8층으로, 6층과 7층, 8층에 오피스텔 17세대가 건축될 예정이며, 입지적인 프리미엄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가가 들어서는 에코시티는 약 4만여명(1만3,000여 세대) 인구의 배후수요가 확보돼 있고, 특히, 에코시티의 상업시설은 전체 면적의 3%로 구성돼 희소가치가 높은 상권형성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바로 연계되는 최중심 상권으로 스트리트 상권형성과 공공청사 이전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전주IC와 전주역, 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최고의 교통망도 확보돼 있다.

아울러 인접한 에코시티 내 풍부한 공공녹지와 연계한 보행동선으로 쾌적성까지 높였다.

보통의 일반상가와 달리 압도적인 부띠크디자인부터 더블수익율까지 예상되는 랜드마크상가로 저금리시대에 딱맞는 불황대책과 노후대책으로 각광 받을 예정이다.

송천동 구 상권의 이동과 함께 덕진구를 대표하는 메머드급상권으로 발전할 에코시티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이어지는 상주소비자를 확보한 밝은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트윈타워1,2는 상가입주자 및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상가업종에 맞는 설계로 상가투자에 성공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하반기부터 '에코시티 자이 1차'를 시작으로 아파트 입주가 본격 시작되면,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을것으로, 조기 분양마감이 예상된다.

트윈타워 상가 분양문의는 063-228-9449로 하면 된다./안재용 기자

전통 순창장류, 호주 수출 첫발

순창에서 생산된 전통 장류제품이 호주 수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순창 장류단지 내 성가정식품, 장본가 등에서 생산하는 고추장, 절임식품 등 5개사 25개 제품으로 1만5,000불 규모의 장류 수출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홍보행사를 갖게 됐다.

이번 수출은 전북중소기업청의 전통문화 소공인 수출 판로개척이라는 기조아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난달 3월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개최한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해 얻은 성과이다.

상담회에 참가한 호주 현지 유통업체인 KS Global Trading에서 주문했으며, 이번 홍보행사를 통해 현지에서 3년간 22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홍보행사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 2곳에서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순창 장류제품에 대한 시음.시식과 함께 해외 소비자에게 전통요리방법도 소개할 계획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향후 순창장류의 수출 확대를 위해 캐나다, 미국 등 한인 사회가 번성하고 있는 지역을 타깃으로 지속적인 바이어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장류 소공인특화센터는 소공인 밀집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순창군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순창군내 전통장류 및 식품 제조업체들에게 경영교육, 공동사업, 판로개척 등 맞춤형 현장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구연산 첨가로 뽕잎 속 '루틴' 손쉽게 추출

농진청, 항비만 활성 높은 '청올뽕' 선발… 루틴 함량 2배~5배 높이는 방법 개발

농촌진흥청은 비만을 억제하는 뽕잎 속 루틴(rutin) 함량을 높이는 방법과 손쉬운 추출법을 개발했다.

뽕잎은 '풍을 제거하고 열을 내리며, 눈을 밝게 한다'고 한의서에 기록돼 있으며, 두통이나 눈이 피로한 사람이 차(茶)로 마시면 좋다.

루틴은 가바(γ-aminobutyric acid, GABA)와 더불어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고혈압·동맥경화 및 중풍 예방 등 다양한 뽕잎의 효능을 나타내는 기능성분 중의 하나이며, 특히 봄뽕의 어린잎에 많이 들어 있다.

농진청은 뽕 품종 중 항비만 활성이 높은 '청올뽕'을 선발하는 한편, 루틴 함량을 2배~5배 높이는 방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

또 가정에서 뽕잎의 루틴을 섭취할 수 있는 손쉬운 가공법을 개발했다.

'부영상', '율본', '청일뽕', '청올뽕'의 어린 뽕잎을 채취해 항비만 활성이 높은 품종을 선발했다.

뽕 품종별 추출물 중 '청올뽕'의 경우 500㎍/㎖ 농도 처리 시 대조구(뽕잎 추출물 무처리구, 지질 축적률 100% 기준) 대비 42.10%의 지질 축적률을 나타내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높았다.

루틴 함량을 높이는 방법은 봄 뽕잎 채취 → 3회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그늘에 펴 널어 물기 완전히 없앰(선풍기 이용) → 열풍건조(60℃) → 환류추출(80℃, 열풍건조 뽕잎 분말 + 구연산 + 주정 또는 물, 25배 첨가) → 여과 → 농축 → 용해 및 저온정치(재결정화) → 원심분리 → 동결건조 → 분말 제조 한다.

또한, 가정에서 손쉽게 주전자를 이용해 뽕잎의 루틴 추출 시 구연산 0.5%를 첨가하고 35배의 물을 넣어 중간불로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

일반 가정에서는 주전자에 뽕잎 분말 30g, 구연산 0.5%, 물 1L를 넣고 중불로 가열하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 전체 물의 양이 30% 정도 될 때까지 중불로 다시 졸인 후 잘 걸러 냉장고에 두고 마시면 된다.

잠사양봉소재과 김현복 농업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뽕잎이 항당뇨, 항고혈압에 이어 항비만 식품소재로도 훌륭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어 국민 건강도 지키고 뽕잎 생산 농가의 소득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한전 무주지사, 군·양수발전소와 사회공헌활동 추진

한국전력 무주지사 사회봉사단은 18일 무주군 및 무주양수발전소와 '무주군 및 전력 그룹사 합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업무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 등 관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웃 사랑 실천을 합동으로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관내 취약 계층 등을 위해 전기 사용과 관련한 불편 해소는 물론 생필품 지원 등 계절별, 테마별 수요자 맞춤형 봉사활동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북은행은 장애인복지관, 도교육청과 함께 18일 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제9회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함께하는 꿈과 소망, 희망'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초등학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림 및 글을 접수 받았다.

총 2,871명이 참여했고, 영역별 전문가 5명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8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심사위원장을 맡은 전주대학교 박승환 교수는 "그림의 기법 보다는 주제와 적합하고, 작품의 실효성, 시사성, 파급효과, 아이디어 및 창작성, 순수그림기법 및 색, 구도 등 5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들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림 부문은 김제검산초 3학년 이명재 학생의 '영차 영차 한마음 운동회'와 군산신흥초 4학년 김성준 학생의 '두려움은 날려버려'가 각각 저.고학년부 대상인 도교육감상을, 글 부문은 정읍태인초 김나랑 특수교사의 '이별이 남긴 선물'이 대상인 전북은행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용택 은행장은 "학생들의 순수하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통해 우리 미래사회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결혼이민여성 맞춤농업교육

전북농협은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1대1 맞춤농업 교육생 201명에 대한 권역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18일 완주.진안 관내 결혼이민 여성(멘티)과 여성농업인(멘토) 60여명에게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업교육을 통한 농촌정착 우수사례와 멘토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고, 딸기 농장을 방문해 재배 노하우에 대한 청취 및 농산물을 수확하는 체험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마케팅 혁신전문가 김현민 강사를 초청해 실시한 SNS활용 교육은 여성농업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 기법을 배우기도 했다. /안재용 기자